

문재인 과반 득표로 ‘굳히기’ 안희정 막판 뒤집기 총력전 이재명 바닥 표심 잡기 분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명운을 가를 호남 순회경선 투표일(27일)이 임박하면서 주지와 캠프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호남에서 과반 득표를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기세를 이어나가면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으로서는 호남에서 문 전 대표의 과반 득표를 막아야 결선투표까지 갈 수 있고 결국 대역전극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 안 지사, 이 시장은 22일부터 27일까지 5박6일간 호남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표심잡기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진 교육공약 발표 자리에서 “입시전문 학교가 돼 버린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며 “대학입시 전형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23일엔 전북 공약 발표에 이어 24일 광주지역 방송토론 등을 소화한다. 25일 충청권으로 잠시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 계속 호남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안 지사는 이날 전주 방문을 시작으로 2박3일간의 호남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전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에 대한 확고한 지원과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서

민주당·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호남 혈투’

부 내륙 발전 사업 등을 통한 전북 내륙 지역 발전 사업을 차기 정부 전략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23일에는 광주·전남 언론사 기자간담회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범시민대회’에, 24일엔 광주에서 열리는 합동토론회에 각각 참석한다.

이 시장은 지난 19일 가장 먼저 호남으로 이동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 지역협력실 신설 ▲탕평인사를 통한 지역 차별 해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전면 재검토 등 전북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잠시 서울로 올라와 한국노총 대표자대회 축사를 한 뒤 다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아 노조와 간담회를 했다. 23일에도 광주·전남 기자회견, 지방분권 개헌촉구대회 참석, 여주시장 방문, 금융노조 상임 간부워크숍 참석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대선 주자들도 오는 25일과 26일 순회경선을 치르는 호남에 ‘출입’하고 있다.

이미 캠프 전력과 조직력을 호남으로 대거 이동시킨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22일 오후 호남으로 향해 호남 경선이 끝나는 26일까지 마무리해 견고일치의 승부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첫 순회경선 일정으로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포함해 전남과 제주의 현장투표가 이뤄지는 25일이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에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안철수·박주선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오후 지상파 TV 합동토론회가 끝난 뒤 곧바로 각각 목포와 광주로 향해 바닷길을 집중시키고 있다.

안철수·박주선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오후 지상파 TV 합동토론회가 끝난 뒤 곧바로 각각 목포와 광주로 향해 바닷길을 집중시키고 있다.

합동토론회 이후 인터넷 일정이 잡혀있는 손학규 경선 후보도 23일 오전 전남으로 달려간다.

안 후보는 23일 목포에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들러 호남을 향한 메시지를

안철수 본선 대비 대세 잡기 손학규 연대로 세 확장 시도 박주선 광주 조직력 풀가동

지를 낸 뒤, 전남의 주요 지역위원회와 여수를 찾는 데 이어 24일에는 전주 등 전북 지역에서 표심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안 후보 측은 50% 이상의 득표를 올려 대세를 만든 뒤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도 동시에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50%를 넘지 못하면 남은 경선에 여전히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본선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 후보는 23일부터 광주·전남에서 머무르며 바깥에 일정으로 지지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손 후보는 이날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전 대표를 연이어 만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 후보 측은 호남에서 조직력을 극대화해 선두로 치고 나간 뒤 수도권에서도 돌풍을 일으켜 이변을 낳겠다는 전략이다. 손 후보 측은 “해볼 만 하다는 게 캠프 분위기”라며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국민의당 후보가 손학규라고 호남 민심이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이자 광주 동남동이 지역구인 박주선 대선 경선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광주에서 조직력을 점검한다.

박 후보는 23일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뒤 전남도당 대선기획단 발대식과 광주시민사회총연합회에서 개최하는 지방분권 토론회에 참석해 표발을 다진 뒤 전북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최현일기자 cki@



민주 경선 현장 투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투표가 실시된 22일 민주당의 한 경선 인단이 광주시 서구 투표소인 치평동 서구선거관 1층 회의실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최현일기자 choi@

문재인-안희정 신경전 가열

安 “어떤 의혹도 답해야”…文 “네거티브 안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정면 충돌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안 지사는 22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을 겨냥, “질겁하게 하고 정밀어지게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덮어버린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에도 전북 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채용 문제와 관련 “검증 과정에서 국민과 언론인의 의문이 다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어떠한 문제 제기에도 후보는 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키기 힘든 지경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번 안 지사의 입장에 대해 전형적인 ‘네거티브’라며 불쾌하다는 입장이지만 감정적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가는 진노 진영이 돌로 갈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상대할 세력은 적폐세력, 그리고 부패 특권 구조다. 그 세력과 구조를 이겨내고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팀이 돼야 하며 내부적으로 균열되서는 안 된다”며 “네거티브만큼은 하지 말자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일부 주장은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나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 경선 앞두고 광주·전남 지지선언 봇물

대학 교수 262명 문재인

여성계 인사 80명 박주선

정당인·청년 30명 손학규 지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호남 경선을 앞두고 각 당 주자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 262명은 2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 후보를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책임자로 판단하고 선택했다”며 “문 후보가

경륜·도덕성·정책·인재 풀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잘 준비돼 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문 후보의 지역 정책과 공약도 지역민의 숙원과 바람을 잘 이해하고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동문 1000명도 23일 오전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다.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 등은 이날 문 후보 지지선언문에서 “정권교체는 촛불혁명의 국민적 열망과 모든 민주개혁세력이 힘을 합쳐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후보는 인수위 준비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되고 검증된 대통령 후보”라고 지지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김행자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과 김광아 광주여대 이사장 등 광주·전남

지역 여성계 인사 80여명은 22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대한민국 여성의 정치·사회·경제 분야 실질적 권리 쟁들을 이뤄낼 책임자로 박주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의당 김경환 부대변인, 유영일 전 전국청년위원장, 조성은 전 비대위원과 청년 30여명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 지지를 선언하고 청년캠프에 합류했다.

이들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공동대표 측 인사들로 전국 청년 조직을 총괄할 것이라고 손 전 대표 측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민의당 호남 경선 투표관리 비상

25일 광주·전남·제주…본인 확인 절차 부실·불법 동원 우려

오는 25일 국민의당 광주·전남·제주지역 경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현장 투표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번 경선에서 현장 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각 후보 진영에서 지지자들 동원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 실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현장 투표라는 점에서 경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당에서는 예상을 넘는 지지자들이 몰릴 경우, 인근 투표소로 분산하고 경선 관리를 최대한 철저히 한다는 입장이지만 투표소 거리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장투표에서 신분증과 본인 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선거 사

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어 대리 및 중복 투표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또 후보 측의 조직 동원 과정에서 관광버스 동원을 통한 편의제공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과 지역별 투표소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경선을 아무런 문제없이 관리할 수 있을지 사실 불안하다”며 “여기에 일부 후보 진영에서 불법적인 동원에 나선 것이 밝혀진다면 경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공매컨설팅
(투자금 100% 책임보장)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대지 500평
건물 419평

최저가 776,000,000
감정가 1,108,000,000



서구 마복동 토지

토지 202평

최저가 468,000,000
최고가 468,000,000



서구 용두동 토지

토지 1684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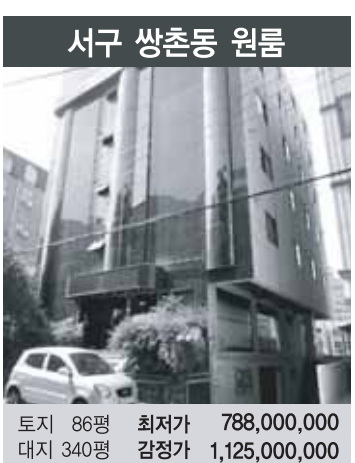
최저가 256,000,000
최고가 256,000,000



서구 쌍촌동 대지

대지 151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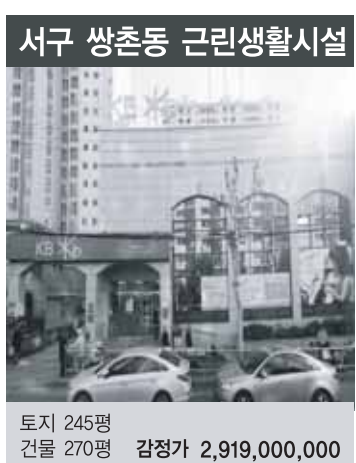
최저가 212,000,000
최고가 302,000,000



서구 쌍촌동 원룸

토지 86평
대지 340평

최저가 788,000,000
감정가 1,125,000,000



서구 쌍촌동 근린생활시설

토지 245평
건물 270평

감정가 2,919,000,000



운암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아주중음)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지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00명 모집
광주법원 입구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